

해·외·뉴·스

2025년까지

세계 항공기시장 규모 2조 6천억달러

에어버스가 오는 2025년까지 세계 항공기 시장의 규모가 2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어버스측은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의 항공기 시장 규모를 이같이 내다보면서 총 생산대수가 2만 2,7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향후 20년간 신형시장과 저가 항공사의 신규 수요가 항공기 발주량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지적했다.

에어버스는 2025년까지 세계 전체의 항공여객 신장률을 연평균 4.8%, 화물 증가율 경우 6.0%에 달한다고 전망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의 항공기 생산대수 2만 2700대는 종전의 예상치를 5,400대 정도 하회하는 것이다. 이 중 약 2만 1,900대는 1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대형 여객기일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2020년 우주왕복선 쏜다

야심찬 우주개발계획을 추진중인 중국이 이번에는 2020년 발사를 목표로 우주왕복선 개발에 착수했다. 홍콩 친중국계 문화보(文匯報)는 지난 12월 1일 중국 고위 우주항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폭 사용이 가능한 제세대 우주왕복선용 로켓 개발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우주왕복선 설계도를 처음 공개했다. 중국 우주공학 전문가들

이 개발에 착수한 우주왕복선은 길이 57m, 폭 20.3m, 무게 750t이며 8t을 실을 수 있다.

이 우주항공 전문가는 중국이 개발하는 우주왕복선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운반 로켓 성능을 한층 강화해 미국의 우주왕복선보다는 재사용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 보다 안전한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 개발에 대해 중국 운반로켓 기술연구원 우원성(吳燕生) 원장은 “중국은 차세대 로켓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 유인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킬 수 있는 차세대 로켓 개발에 거의 성공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의 로켓은 달 궤도에 우주선을 올릴 수 있는 정도에 그쳤을 뿐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운반 로켓은 25t의 무게를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고, 14t의 위성을 36만km 떨어진 지구 정지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로켓은 현재 국산 로켓보다 추진력이 3배나 뛰어나다”고 밝히고 “실제 운용에는 앞으로 8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텐진에 A320, A350 생산공장 건설

에어버스가 협동체기 150대, 광동체기 20대를 중국에 지원하고, 오랜 숙원사업이던 텐진에 최종 생산라인을 건설하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항공기 기자재 수출입집단공사(CASGC)와 에어버스는 베이징에서 A320 계열기 150대의 일반 거래 조건 협정(GTA)과 A350XWB 항공기 20대의 양해각서(LOI)에 서명했다. 계약은 후진타오(Hu Jintao) 중국 주석과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CAGGC 사장인 리 하이(Li Hai)와 에어버스 사장인 루이 갈루아(Louis Gallois)가 서명했으며 본격적인 가동은 2009년

부터이다. 생산은 2009년 초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올해 초 에어버스와 중국의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총 4곳의 후보지 중에서 텐진을 생산 공장부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번 계약이 성립되었다.

갈루아와 중국 측 합작 대표인 펑 지장(Feng Zhijiang)이 10월 26일에 베이징에서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으며, 중국 측 합작 파트너는 텐진 자유무역지대, 중국항공공업제1집단공사(AVIC I), 중국항공공업제2집단공사(AVIC II) 등이다. 텐진공장은 2011년까지 월 1대의 A320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기 부품은 유럽에서도 계속 제작되지만 중국 공장에서도 유럽 제품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된다. 한편 텐진은 베이징에서 차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으며 중국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4개 도시 중 하나이다.



이란, 독자 개발 전폭기 비행테스트 성공

이란의 비밀 “사이게(Saegheh)” 전폭기가 폭격 시험 임무 중에 그 기본 모델인 노드롭 F-5E 타이거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 되었다. 이란의 국영 매체는 공군이 F-5를 역설계하고 기존의 수직 꼬리날

개를 V자형 이중 수직 꼬리날개로 개조한 “사이 게”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항공기 배출가스 규제 추진

유럽연합(EU)이 2011년부터 역내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산화탄소 등 배출 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이나 국가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나 기업들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는 제도로, 이번 EU의 규제안에 따라 2011년부터 EU 역내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규제를 초과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에 항공사들은 이 비용을 승객에게 부과할 방침으로 유럽 역내를 오가는 항공기는 1인당 9유로(약 1만800원), 해외 장거리 항공기는 최대 39.6유로(약 4만7000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노후돼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항공기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

집행위는 당초 유럽 역내를 운항하는 비행기에 한해 이 계획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항공기에 적용해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EU 내 항공업계는 “이 방안이 국제사회의 EU에 대한 무역 규제 등 경제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영, 소음 없는 여객기 개발 착수

AP통신이 지난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의 항공업계와 대학 연구소들이 합동으로



연료 효율이 높고 소음이 거의 없는 날렵한 외관의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MIT공대와 캠브리지대학, 보잉과 롤스로이스 등 30개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6일 런던 왕립항공협회에서 공개한 개발 초안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승객 124명을 태우고 1갤런당 1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연료 효율성에 이착륙시는 물론 비행중에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게 설계된다. 소음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흔히 볼 수 있는 여객기들과 달리 엔진이 비행기 몸체 안에 설계되며 이로 인해 외관도 가늘고 긴 형태를 탈피해 날렵한 새 모양과 비슷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오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중이지만 상업화 성공만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의 줄탄 스바로브스키 MIT대 교수는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외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로파이터 72대 도입 추진

BAE 시스템즈가 72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납품하는 100억 파운드(190억 달러) 규모의 주계약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타이푼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거래 원칙들에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생산 계획과 관련된 책임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군 현대화를 위해 더 큰 협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정부가 서명한 양해 문서의 뒤를 잇는 것이다.

최근 영국 국방장관인 데스 브라운은 사우디 측 상대인 술탄 빈 압둘-아지즈 왕자와 항공기, 미사일 및 정비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협정을 맺었으며, 이어 사우디 정부가 협약을 승인했다. 아직 최종 납품 기체 대수, 무기, 최종 조립 장소 및 금융 제도 등을 해결해야 하며, 올 해 말까지는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는 EADS와 이탈리아의 핀메카니카(Finmeccanica)가 참여한다.

한편 계약이 체결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푼의 두 번째 수출국이 되며, 현재까지 오스트리아가 18대를 주문한 바 있다. 발주국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은 이미 384대의 항공기를 생산하는 주문에 서명을 했다.



일본 방위청, 초소형 정찰기 개발 착수

일본 방위청이 최신에 초소형 정찰기의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니케이 신문이 지난 12월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청이 개발하려는 정찰기는 날개 폭 약 60cm의 무인 항공기로 종이비행기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초소형 정찰기는 도서 지역과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상륙과 침공 등을 상징,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중에서 적의 동향을 탐지하고 촬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위청은 앞으로 자율비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해 5년 후 실용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에 민간기업과 협력해 방위청 기술연구본부가 약 10억엔(9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미국도 비슷한 소형 정찰기의 개발에 돌입했는데 방위청은 ‘세계 최소형의 정찰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